

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의 역할 및 학문적 위치

박 홍 석*

<목	차>
1. 문헌의 유통 과정과 문헌정보학	4.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이의 문제점
1.1. 문헌과 정보	4.1. 변화하는 문헌정보 환경
1.2. 문헌정보학의 역할	4.2. 변화에 대한 대응
2.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	4.3. 문헌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2.1. 전자 문헌의 출현	5.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
2.2. 문헌의 전달 기술	6. 문헌정보학의 과제
3.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 문헌 유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	6.1. 문헌의 생산에 관한 과제들
3.1. 문헌의 생산에 대한 영향	6.2. 문헌의 수집에 관한 과제들
3.2. 문헌의 수집에 대한 영향	6.3. 문헌의 조직에 관한 과제들
3.3. 문헌의 조직에 대한 영향	6.4. 문헌의 검색에 관한 과제
3.4. 문헌의 검색에 대한 영향	6.5. 문헌의 이용에 관한 과제들
3.5. 문헌의 제공에 대한 영향	7. 결 론
3.6. 문헌의 이용에 대한 영향	참고문헌

1. 문헌의 유통 과정과 문헌정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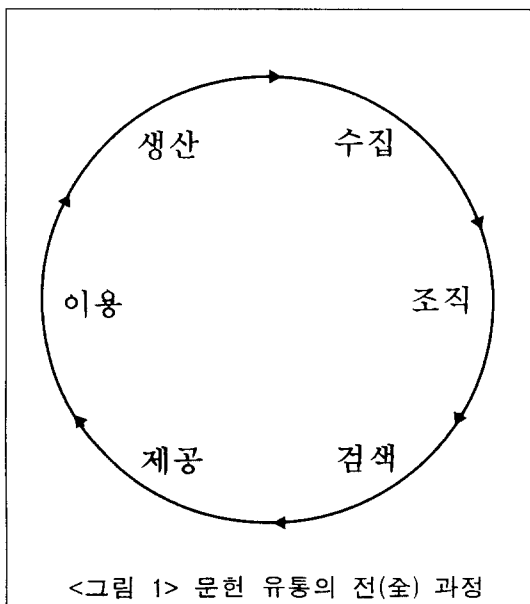
이 글은 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의 역할과 학문적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문헌정보학이 다루는 대상인 문헌과 정보 그리고 문헌정보학의 기본적인 역할에 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1.1 문헌과 정보

문헌정보학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문헌과 정보에 관한 학문 분야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에 관해 생각할 때는 이 학문 분야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과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어떠한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언어, 수화, 기(旗), 연기(煙氣) 등의 표시를 사용해 왔다. 전달하고자 하는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의미가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를 어떤 형태의 수단을 이용해 보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를 들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 중 하나가 글이고 그리고 이러한 글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 종이 혹은 책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은 녹음 테잎이라는 수단에 보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책이나 테잎 등을 문헌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 문헌이라 함은 이러한 책이나 음반에 보관되어 있는 글, 기호, 음성 등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위 논문을 마쳤다고 말할 때 학위 논문(일종의 문헌)의 내용을 위한 글, 그림, 도표 등의 표시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그 표시가 책에 보관되었건 전자출판을 위해 디스켓에 보관되었건 그것은 논문을 마쳤다는 의미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문헌이라고 말할 때는 한 권의 책, 잡지에 실린 하나의 기사, 학술 잡지의 학술 논문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주된 것은 종이나 다른 보관 수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보관 수단에 보관된 글과 그림 그리고 다른 종류의 표시인 것이다. 물론 보관되지 않은 말이나 소리를 문헌이라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 대화를 문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화이고 말일 뿐이다. 이러한 것이 어떤 보관 수단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문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글, 그림, 말, 소리, 기호 등의 표시가 어떤 수단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표시를 문헌이라 부른다. 그러나 보관 수단 그 자체는 문헌이 아니다. 같은 문헌은 다른 수단을 통해 보관될 수 있다. 하나의 문헌은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관될 수도 있고 혹은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될 수도 있다.



문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 모두를 우리는 정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헌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 중 전달 받은 이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정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소련어로 쓰여진 물리학에 관한 문헌은 소련어를 이해할 수 없고, 물리학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물리학에 아무런 흥미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정보란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는 문헌을 통해 전달되는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은 가치 있는

내용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헌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문헌정보학의 역할

문헌의 생산으로부터 이용, 그리고 다시 생산까지의 유통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그림 1에 있는 바와 같이 문헌의 생산, 수집, 조직, 검색, 제공, 그리고 이용, 그리고 새로운 문헌의 생산이다. 문헌이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헌의 생산이 원활해야 하고, 생산된 문헌이 수집되어야 하고, 원하는 문헌을 찾을 수 있기 위해 수집된 문헌들이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된 문헌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검색된 문헌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된 문헌은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문헌의 이용은 문헌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서 만약 하나의 단계라도 효과적이지 않다면 문헌의 전체 유통 과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모든 문헌이 이러한 전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은 가치 있는 내용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헌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라고 앞에 말했었다. 즉 문헌정보학의 역할은 가치 있는 즉 문헌정보학에서 다루는 가치인 적합성이 있는 문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적합한 문헌의 생산, 적합한 문헌의 수집, 적합한 문헌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적합한 문헌의 검색, 적합한 문헌의 제공, 그리고 적합한 문헌의 이용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적합성의 개념은 문헌의 궁극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 문제와의 유사성, 문헌의 중요성 등의 개인적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문헌정보학은 이용자 개인에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문헌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서 문헌정보학이 개인과 사회에 유의한 학문 분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문헌 유통의 개개의 과정에서의 문헌정보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먼저 문헌정보학은 문헌의 생산 현황, 생산의 효율,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다루어 적합한 문헌이 원활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분야의 혹은 어떤 주제에 관한 문헌이 생산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문헌의 생산 현황과 지식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어 문헌의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전적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문헌 생산자의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그리고 문헌의 생산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마련해 적합한 문헌의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다. 적합한 문헌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사회적, 정책적, 문화적, 심

그리고 문헌의 생산과 보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대에는 음성과 움직이는 화면과 같은 것들까지도 보관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는 음반, 영화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형태의 문헌도 생겼다.

책, 음반, 영화 등을 재래식 문헌이라 한다면 현대에는 전자 문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헌의 출현하였다. 재래식 문헌과 전자 문헌의 가장 큰 차이는 재래식 문헌은 종이나 테이프와 같은 어떤 물질적 수단에 기록되어 있고 전자 문헌은 디스켓이나 그 외의 수단에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래식 문헌과 전자 문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 문헌은 생산과 복제가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 문헌은 문헌의 수정과 변형이 재래식 문헌에 비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전자 문헌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재래식 문헌과는 달리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문헌은 단순한 글로만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문헌까지 발달하였다. 멀티미디어 문헌은 글, 그림, 음성, 그리고 동화상을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영화나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자료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지만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되고 보관되어 이의 수정, 편집, 복제, 전달 등이 매우 용이하다. 멀티미디어 문헌의 출현에 뒤이어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자 문헌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문헌의 형태이다.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가상의 현실을 사람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게하는 것이다.

2.2. 문헌의 전달 기술

종이나 시청각 자료에 보관되어 있는 재래식 문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헌을 보관하고 있는 수단의 물질적인 이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헌의 전달 속도는 물질의 이동 속도와 같다. 그리고 재래식 문헌을 복제하는 것은 그 복제되는 문헌을 보관할 물질적 수단에 복제하는 것이다. 문헌의 확산 속도는 문헌의 전달 속도와 복제 속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물질의 빠른 이동 속도와 인쇄술의 발달을 생각해 볼 때 재래식 문헌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 문헌의 출현과 그리고 이를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통신망의 발달에 의해 문헌의 유통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전자 문헌의 복제는 재래식 문헌의 복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자 문헌의 확산 속도는 재래식 문헌에 비해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전자 문헌은 문헌의 생산과 보관의 새로운 방법이고 통신망은 문헌 전달의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문헌의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 문헌 유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

문헌의 생산, 보관 및 전달 기술의 발달은 문헌의 유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헌 유통 기술의 영향을 문헌 유통의 각 단계별로 알아보자.

3.1. 문헌의 생산에 대한 영향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은 문헌의 생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 정보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판의 개인화, 문헌 생산의 증가, 문헌 수명의 단축, 문헌의 질, 그리고 문헌 종류의 다양화를 다루어 보자

3.1.1. 출판의 개인화

한 개인이 재래식 문헌을 출판한다는 것은 그 절차와 비용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로 달라지고 있다. 먼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문헌의 생산을 매우 용이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생산된 문헌의 배포가 문헌 전달 기술의 발달로 매우 쉬워졌다. 재래식 문헌을 넓은 지역으로 배포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물류를 배포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나 전자 문헌의 출현과 그리고 이러한 문헌을 넓은 지역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통신망의 발달은 전자 문헌의 출판을 매우 싼 값에 그리고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문헌의 생산과 배포가 매우 쉬워 문헌의 출판이 개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래식 문헌의 배포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가능했고 문헌의 출판 비용이 비싸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헌의 출판이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 문헌이 등장하고 그리고 전자 문헌을 넓은 지역으로 배포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일반인들이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난 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다. 개인은 손 쉽게 문헌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생산된 문헌을 손 쉽게 그리고 싼 값에 전 세계로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출판이 개인에 의해 쉽게 그리고 싼 값에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문헌을 유통시키는 기관이나 단체도 이러한 개인에 포함된다.

3.1.2. 문헌 생산의 증가

개인에 의한 출판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되는 문헌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래식 문헌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전자 문헌도 개인에 의해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고 전자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쓴 글을 전자 게시판이나 뉴스 그룹을 통하여 전세계에 유통 시킬 수 있다. 즉 나는 내가 유통시키고자 하는 문헌을 생산하여 매우 낮은 값으로 전세계에 배포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이 생산한 수십 개의 문헌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는 데는 20000원이 채 들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컴퓨터가 가정과 사회에서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개인에 의한 문헌의 생산과 배포를 증가시킬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상업적인 통신망, 인터넷, 그리고 이들 외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학교, 정부 기관, 연구소 등의 기관에 의해 생산되어 보관되어 있는 전자 문헌의 양은 막대한 것이다.

3.1.3. 문헌 수명의 단축

문헌은 지식의 산물(産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문헌의 수명은 길다. 과거의 지식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면 그 지식은 다른 지식으로 교체된다. 지식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식의 교체 또한 빨라지고 그리고 문헌의 수명도 단축된다. 현대의 생활과 학문 분야들은 과거에 비해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예: Toffler, 1970). 예를 들어 도서관학이 문헌정보학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최근의 일이며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에도 기술과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의 지식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헌이 생산된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더 가속시키는 것이 혹은 이러한 빠른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다. 변화된 혹은 진보된 지식의 빠르고 넓은 전달은 새로운 지식의 빠른 생산을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의 빠르고 넓은 전달은 다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지식의 변화를 가속시켜 문헌의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더욱 더 문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전자 문헌은 수정, 편집, 이동 등이 쉽다는 전자 문헌의 특징이다. 재래식 문헌은 한번 생산되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 문헌은 한번 생산되어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이 쉽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식의 변화와 더불어 문헌의 수명을 더욱 더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3.1.4. 문헌의 질

개인에 의한 출판이 매우 용이해 짐에 따라 많은 문헌이 개인에 의해 유통되지만 이러

한 문헌의 질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재래식 문헌 출판의 과정과 비용은 생산되는 문헌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책이거나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등등의 어떤 종류의 가치가 있어야만 출판사가 출판을 결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 낮은 문헌의 생산을 어느 정도 억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출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질 낮은 문헌도 손쉽게 출판될 수 있다는 의미가 때문에 통신망을 통해 개인에 의해 출판되는 문헌은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이러한 문헌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 Stoll, 1995, 55-58쪽). 내용의 질과 함께 내용의 신빙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에 의한 출판은 생산된 문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 장서나 DIALOG와 같은 상업적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문헌과 인터넷과 같이 개인이 출판한 문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문헌의 질과 신빙성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문제가 명백해 진다. 도서관 장서는 출판된 책이나 학술 잡지 등 그 내용의 질이나 신빙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기관에 의해 출판된 문헌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많은 문헌들은 이러한 장치가 없는 개인에 의해 출판된 것들이다.

3.1.5. 문헌 형태의 다양화

아직도 종이는 가장 중요한 문헌 보관 수단이고 책이나 잡지는 가장 보편적인 문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시청각 자료 형태의 문헌도 있다. 이러한 재래식 문헌의 형태에 더해 새로운 문헌의 형태인 전자 문헌이 등장하고 있어 문헌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전자 문헌도 텍스트 파일, 그래픽 파일, 멀티미디어, 가상 현실 등 다양한 형태와 그리고 하나의 형태의 전자 문헌도 생산된 도구에 따라 HTML, GIF, JPG, Postscript, ASCII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문헌 형태의 다양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3.2. 문헌의 수집에 대한 영향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은 정보서비스 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문헌의 수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3가지 영향만을 생각해 보자.

3.2.1. 개인에 의해 출판된 문헌의 수집의 어려움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은 개인에 의한 문헌의 출판을 쉽게 만들었다. 이러한 개인에 의

한 출판이 문헌정보 서비스에 의미하는 바는 크다. 재래식 문헌은 출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출판되어 유통된다. 재래식 문헌을 출판하는 기관들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출판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정적인 수의 출판 기관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그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재래식 문헌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한 문헌의 출판이 가능한 지금은 생산된 모든 문헌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개인이 출판하는 모든 문헌을 모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한 문헌의 수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생산된 문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에 의해 출판되는 문헌을 파악할 수 없어 이러한 문헌을 수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 출판과 이의 통신망을 통한 배포가 일반화되고 재래식 방법에 의한 출판이 감소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증가할 것이다.

3.2.2. 수동적 수집의 증가

문헌의 수집에는 능동적 수집과 수동적 수집이 있다. 능동적 수집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어떤 특정 문헌의 수집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생산된 문헌 중 어느 문헌을 수집할 것인가를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은 학과, 교과 과정,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적합한 문헌만을 수집한다. 능동적 수집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문헌 수집 방법이다. 수동적 수집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혹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어떤 문헌이 수집될 것인가는 제공자에 의해 결정된다. 단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수집되지 말아야 할 문헌에 대한 기준을 세워 이에 근거해 이용자가 제공한 문헌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헌의 수집은 수집될 문헌에 관한 정보서비스 기관의 수동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이텔이나 천리안에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올려 놓은 문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그 기관들은 어떤 특정 문헌을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 결정은 문헌의 제공자가 하는 것이다. 그 기관들은 단지 올라오지 말아야 할 문헌이 올라왔을 경우에만 그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삭제하는 문헌에 대한 수동적인 선택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수동적 수집의 단적인 특징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어떤 문헌이 수집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에 의한 문헌의 출판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수동적 수집에 의존해 문헌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이고 각종 상업 PC통신 서비스의 자료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개인에 의한 전자 문헌의 출판이 일반화되면 될 수록 수동적 수집에 의존하는 문헌정보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다. 수동적 수집의 가장 큰 단점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가치 없는 문헌들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질 좋은 문헌들을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데 있다. 수동적 수집 과정을 거쳐 수집된 문헌을 제공하는 문헌정보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치 없는 문헌을 제거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낮은 문헌은 제거될 수 있지만 능동적 수집과 같이 가치가 높은 문헌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3.2.3. 잠재적(潛在的) 장서의 증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효과적인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수집한다. 도서관 장서가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문헌의 집단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결정했던 문헌의 제공자가 결정했던 특정 문헌의 수집에 대한 결정이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어떤 책이 도서관에 한 권의 장서로서 수집이 되었다면 혹은 어떤 문헌이 이용자에 의해 제공되었다면 이러한 문헌의 내용은 그 문헌의 수집을 결정한 사람에게 알려져 이것이 적합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되어 수집된 것이다. 이 경우 개개의 문헌의 수집에 대한 결정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 장서라고 부르기로 하자. 구체적 장서는 하나의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능동적 혹은 수동적 문헌 수집을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집된 그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에 속해 있는 문헌이다. 이에 대비되는 장서는 잠재적(潛在的) 장서다. 잠재적 장서는 어떤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능동적 혹은 수동적 문헌 수집을 결정하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 수집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에 속해 있지도 않은 문헌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대학 도서관이 하이텔의 교육자료실에 있는 어떤 문헌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면 하이텔의 교육자료실에 있는 그 특정 문헌은 그 문헌의 수집을 그 대학도서관 측이 결정하지 않았고 그 대학도서관에 속해 있지도 않지만 그 도서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수집된 장서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에 속해 있는 문헌들이다. 어떤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그러한 문헌들의 수집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 기관에 속한 것들도 아니지만 그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그 문헌들을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각종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들과 각종 단체나 개인의 장서 혹은 문헌들이 그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의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구체적 장서 외에 다른 기관들의 구체적 장서들을 자신의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한 잠재적 장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구체적 장서도 늘고 있겠지만 많은 전자 문헌이 생산되고, 많은 재래식 문헌이 전자화 되고, 통신망을 통해 이러한 문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의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자신의 장서처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장서는 크게 늘고 있다.

3.3. 문헌의 조직에 대한 영향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 문헌의 생산과 수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문헌의 조직 방법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DDC, LCC, MARC, 수동 색인, 자동 색인 등의 방법들이 문헌의 조직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 조직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재래식 문헌 형태의 도서관 장서를 조직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DDC, LCC, MARC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전산화된 서지 사항들을 이용해 문헌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문헌의 주제어, 제목, 초록 등을 사용하는 자동 분류나 색인 방법들이다. 그리고 셋째 문헌의 전문(全文)을 사용해 문헌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즉 전문을 사용해 문헌을 자동적으로 분류하거나 색인하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문헌 조직 방법들은 적은 수의 문헌을 조직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문헌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조직 방법들은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집된, 즉 문헌의 신빙성이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문헌의 조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나의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검색해야 할 대상 문헌은 수동적 수집과 잠재적 장서의 증가되는 중요성으로 그 수와 성질 면에서 크게 변하고 있지만 문헌의 조직 방법에는 큰 변화는 없다. 물론 통신망 문헌 검색(NIR: Network Information Retrieval)을 위한 문헌의 표준화를 위한 문헌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으나 (Desai) 이러한 것은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는 과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3.4. 문헌의 검색에 대한 영향

과거 도서관의 문헌정보 서비스는 도서관 장서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은 주로 장서 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장서만이 주된 검색 대상이었다. 지금은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 출처에 접근이 가능해 잠재적 장서도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대상 문헌의 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즉 검색의 범위가 하나의 도서관에서 국제적인 범위로 넓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헌 유통 기술이 검색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그러나 검색 범위는 매우 넓어진 반면 검색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새로운 검색 모델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문헌 조직의 기본적인 방법에 변화가 없고 단지 적합성의 계산에 사용되는 수식(數式)에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도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검색 방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헌의 조직 방법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3.5. 문헌의 제공에 대한 영향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 문헌의 제공에 미친 영향 중 문헌정보 서비스에 중요한 4가지만 살펴보자.

3.5.1.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 의한 문헌정보 서비스

문헌의 유통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헌의 제공도 매우 쉬워졌다. 문헌은 먼 거리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다. 즉 문헌의 제공에 큰 장애가 되었던 시간과 지역의 벽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문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5.2. 과도한 문헌의 제공

문헌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잠재적 장서의 등장으로 검색 대상 문헌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자는 너무 많은 문헌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검색에서 수만 건의 검색된 문헌을 제공받는 경우는 흔하다. 그리고 이용자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문헌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은 과중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피로공후군”이라는 새로운 현대병을 등장시킬 정도다.

3.5.3. 질 낮은 문헌의 제공

문헌 출판의 개인화는 생산되는 문헌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 낮은 문헌의 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생산되어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에 수동적으로 수집된 질 낮은 문헌들을 이러한 문헌들을 조직하고 검색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걸러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물론 이러한 문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헌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제공

된다면 이는 문헌정보 서비스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질 낮은 문헌의 유통의 문제점은 이들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자가 이들을 걸러 내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문헌의 수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헌들은 이용자에게 좀 더 적합한 문헌의 제공에 지장이 된다.

3.5.4.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제공

문헌의 검색과 제공이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장서에서 국제적인 범위로 넓어짐에 따라 문화에 맞지 않는 문헌이 제공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어 유통될 수 있는 문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문헌의 유통이 허락되는데 반해 한국은 성인물이나 그 외의 반사회적인 것들의 유통이 제한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다루었던 기사를 예로 들어 보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한 국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열려 있기 때문에 법률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가 로버트 미첼氏는 “인터넷은 국가의 총체적인 통제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아 가 버렸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돈 블랙이 이끄는 ‘폭풍의 전선’ (Storm-Front)과 같은 몇몇 그룹들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독일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독일 내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는 처벌됐을 것이다...(주간조선 1996년 4월 18일)

이러한 국제간의 문헌의 유통은 한 나라의 법과 문화가 그 유통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에 대한 접근을 제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것은 통신망을 통해 문헌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3.6. 문헌의 이용에 대한 영향

이용자가 문헌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문헌의 내용을 정보로서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고 이용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문헌만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헌의 생산과 배포가 쉬워지면서 가치가 낮은 문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 질 낮은 문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은 제공되어도 이용가치가 낮은 것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그러나 검색 범위는 매우 넓어진 반면 검색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새로운 검색 모델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문헌 조직의 기본적인 방법에 변화가 없고 단지 적합성의 계산에 사용되는 수식(數式)에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도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검색 방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헌의 조직 방법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3.5. 문헌의 제공에 대한 영향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 문헌의 제공에 미친 영향 중 문헌정보 서비스에 중요한 4가지만 살펴보자.

3.5.1.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 의한 문헌정보 서비스

문헌의 유통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헌의 제공도 매우 쉬워졌다. 문헌은 먼 거리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다. 즉 문헌의 제공에 큰 장애가 되었던 시간과 지역의 벽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문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5.2. 과다한 문헌의 제공

문헌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잠재적 장서의 등장으로 검색 대상 문헌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자는 너무 많은 문헌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검색에서 수만 건의 검색된 문헌을 제공받는 경우는 흔하다. 그리고 이용자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문헌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은 과중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피로공후군”이라는 새로운 현대병을 등장시킬 정도다.

3.5.3. 질 낮은 문헌의 제공

문헌 출판의 개인화는 생산되는 문헌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 낮은 문헌의 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생산되어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에 수동적으로 수집된 질 낮은 문헌들을 이러한 문헌들을 조직하고 검색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걸러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물론 이러한 문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헌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제공

된다면 이는 문헌정보 서비스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질 낮은 문헌의 유통의 문제점은 이들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자가 이들을 걸러 내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문헌의 수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헌들은 이용자에게 좀 더 적합한 문헌의 제공에 지장이 된다.

3.5.4.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제공

문헌의 검색과 제공이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장서에서 국제적인 범위로 넓어짐에 따라 문화에 맞지 않는 문헌이 제공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어 유통될 수 있는 문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문헌의 유통이 허락되는데 반해 한국은 성인물이나 그 외의 반사회적인 것들의 유통이 제한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다루었던 기사를 예로 들어 보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한 국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열려 있기 때문에 법률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가 로버트 미첼氏는 “인터넷은 국가의 총체적인 통제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아 가 버렸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돈 블랙이 이끄는 ‘폭풍의 전선’ (Storm-Front)과 같은 몇몇 그룹들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독일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독일 내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는 처벌됐을 것이다...(주간조선 1996년 4월 18일)

이러한 국제간의 문헌의 유통은 한 나라의 법과 문화가 그 유통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에 대한 접근을 제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것은 통신망을 통해 문헌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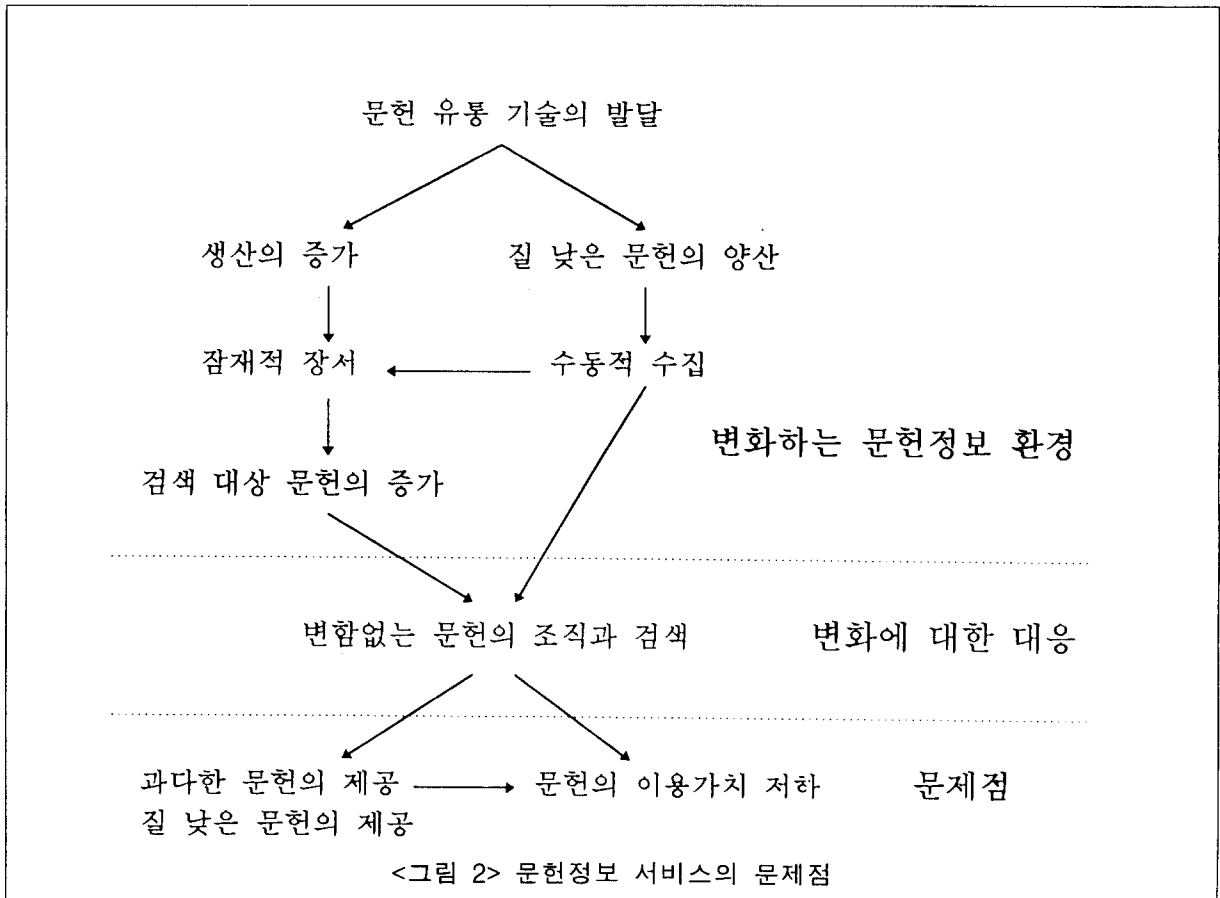
3.6. 문헌의 이용에 대한 영향

이용자가 문헌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문헌의 내용을 정보로서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고 이용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문헌만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헌의 생산과 배포가 쉬워지면서 가치가 낮은 문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 질 낮은 문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은 제공되어도 이용가치가 낮은 것들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문헌이 제공됨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문헌을 선택하기가 어려워 제공되는 문헌들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린다. 변화하는 문헌 유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만을 제공하지 못해 이용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문헌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4.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이의 문제점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은 문헌의 유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들만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1. 변화하는 문헌정보 환경

문헌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기술인 문헌의 유통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두 가지 큰 변화가 왔다. 첫째 문헌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재래식 문헌도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망을 통한 문헌의 출판은 문헌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출판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헌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 출판이 점점 보편화된다면 문헌의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질 낮은 문헌의 양산이다. 통신망을 통한 개인에 의한 출판에는 문헌의 질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문헌은 질이 낮은 경우가 많다.

통신망을 통한 문헌의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문헌들도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잠재적 장서로서 중요하게 되었다. 잠재적 장서의 등장은 하나의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정보서비스를 위한 검색 대상 문헌의 큰 증가를 초래했다. 이것은 전통적 도서관 장서의 수와 비교한다면 하나의 정보서비스 기관이 검색해야 하는 문헌의 수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들을 주된 장서로 사용해 문헌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도 생겨났다. 수동적으로 수집된 장서들은 정보서비스 기관이 구체적으로 그 질과 신빙성을 보장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도서관의 장서보다 그 질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질 낮은 문헌정보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문헌정보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다.

4.2.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조직과 검색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통적 도서관 장서를 조직하고 검색하기 위한 DDC나 LCC 그리고 카드 목록을 사용해 통신망에 존재하는 문헌들을 조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문헌들을 일일이 발견하여 MARC를 사용해 조직할 수도 수동적으로 색인할 수도 없다. DIALOG와 같은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에 소장되어 있는 전자화된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문헌의 전문(全文)이나 서지사항들을 사용한 다양한 자동 분류 및 색인 방법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그들의 주된 대상인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의 문헌의 검색에도 제한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그들의 대상 문헌들과 그 수와 성질이 다른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에 존재하는 문헌의 검색에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문헌정보 환경이 변하였지만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문헌정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3. 문헌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문헌정보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문헌의 과다한 제공이다. 문헌의 생산이 크게 늘고 잠재적 장서의 등장으로 검색 대상이 되는 문헌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헌을 조직하고 검색하는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문헌의 수는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탐색어를 여러 개 사용하여도 몇만 내지는 몇 십만 개의 문헌이 검색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는 이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 제공된 문헌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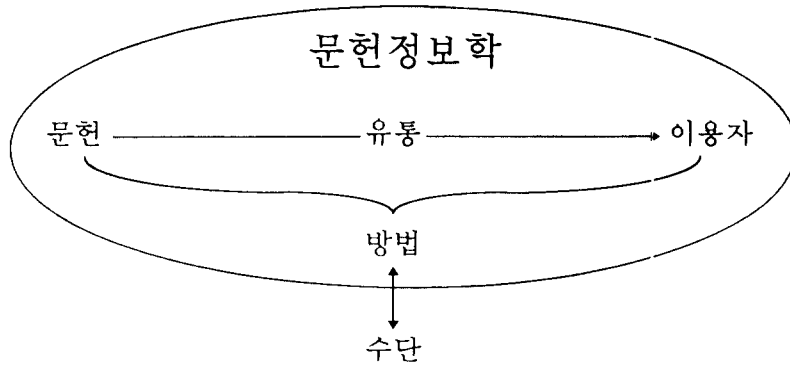
질이 낮은 문헌이 많이 생산되고 수집되지만 문헌의 조직이나 검색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문헌의 질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제공된 문헌들 중 상당수는 질이 낮거나 혹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내용의 질과 신빙성이 낮거나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문헌을 제거하는 기능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문헌의 조직 및 검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다한 문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이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갖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문헌정보 서비스가 적절하게 적합하지 않은 문헌들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공된 문헌들이 적합한 것들이라 해도 그 수가 너무 많다면 이용자가 그 많은 문헌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질 낮은 문헌들이 이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효과적인 혹은 건전한 방향으로의 이용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문헌의 이용이 어려워졌다.

5.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

문헌정보학은 문헌의 생산부터 문헌의 이용까지 문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문헌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겨난 문헌 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다루기 전에 문헌정보학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림 3에 있는 바와 같이 문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4개 있다. 첫째가 문헌이다. 문헌은 유통의 대상으로서 이것이 원활하



<그림 3>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

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문헌의 특성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가 이용자다. 문헌 유통의 마지막 과정은 문헌의 이용인데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의 전달은 문헌 유통의 목표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적합한 문헌을 유통시킬 수 있다. 셋째가 유통 과정에 관한 것이다. 생산된 문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적합한 것들만 선택되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해야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문헌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헌 유통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가 문헌 유통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헌의 유통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헌의 유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헌의 유통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은 문헌의 유통 방법에 관한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 방법에 맞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문헌정보학이 유통 대상인 문헌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은 이용자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이용자가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문헌을 바라보아야 문헌 유통과 문헌정보 서비스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문헌 전달의 목적은 의미의 전달이고 그리고 의미 전달의 목적은 이용자가 그 의미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의 의미라는 것은 문헌을 구성하고 있는 기호, 언어, 그림 등의 표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언어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한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 문헌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헌의 의미는 문헌을 읽는 사람에 의해 유추되는 것이기 때문에 (Sperber & Wilson, 1986) 문헌을 사용하려는 목적, 이용자의 지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예를 Leonard(1975)와 Markey(1984)가 정리한 색인자들 사이의 색인어 선택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들이 정리한 것에 따르면 색인어 선택의 일관성은 4-82% 와 10-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문헌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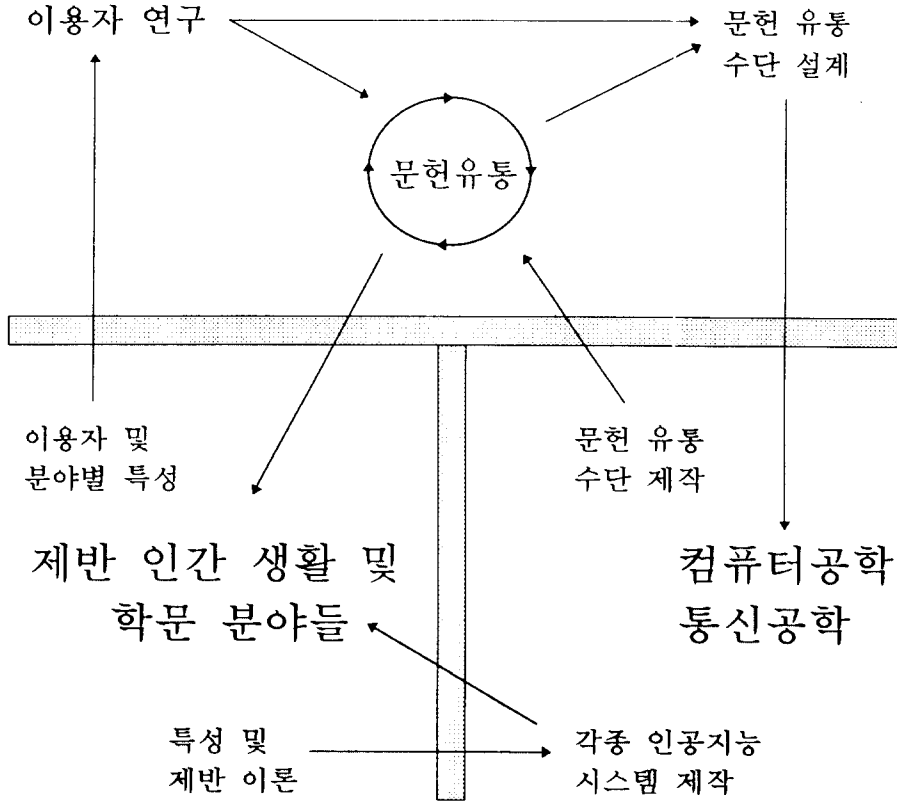
같지만 또 어느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하나의 문헌이 사회학에 관한 것인가 혹은 심리학에 관한 것인가와 같은 넓은 의미는 일관성이 높을 것이고 정보의 가치에 관한 것인가, 저작권에 관한 것인가, 정보의 생산에 관한 것인가, 문헌 유통의 자유에 관한 것인가 등과 같이 좀더 세밀한 의미는 일관성이 낮을 것이다. 문헌의 유통에 있어 사용되는 의미는, 예를 들어 색인어나 정보 요구의 의미는, 어느 정도 세밀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문제는 문헌의 유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헌에 관한 것을 연구할 때는 문헌 그 자체의 특징 보다는 이용자가 바라본 문헌의 특징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문헌정보 서비스의 목적상 더욱 효과적이다.

문헌 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의 원활한 제공과 이의 이용이다. 그러므로 문헌의 유통 과정에는 문헌의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판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헌의 적합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문헌의 유통 과정은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적합한 문헌의 생산, 적합한 문헌의 수집, 적합한 문헌의 발견을 원활하게 하는 문헌의 조직, 적합한 문헌의 검색, 그리고 적합한 문헌의 제공, 그리고 적합한 문헌의 올바른 이용까지의 이러한 과정은 이용자에 맞추어져야 한다. 물론 문헌의 유통 방법도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의 유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다.

위의 것들을 정리하면 문헌정보학은 이용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이 다루는 문헌 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의 원활한 제공과 이의 이용이다. 그러므로 문헌의 유통 과정은 이러한 이용자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림 4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은 제반 인간 생활 및 학문 분야들에 대한 이용자 연구를 하여 이용자 및 분야별 특성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문헌의 유통에 적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문헌 유통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 연구와 문헌 유통 방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 유통 수단을 설계해 문헌 유통 수단의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중심적인 것이다.

문헌의 생산 및 보관의 중요한 수단인 컴퓨터와 주변기기 그리고 문헌의 중요한 전달 수단인 통신망에 관한 것이 문헌정보학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단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인쇄나 제지 기술 그리고 책의 운송 수단 등에 관한 것들이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에 포함되

문헌정보학



<그림 4> 문헌정보학의 역할

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만 문헌정보학은 문헌 유통 수단을 사용해 문헌 유통을 시키는 학문 분야이므로 이러한 목적과 방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문헌의 유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문헌의 유통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통 수단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설계하여 그러한 수단의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

컴퓨터와 통신망 등과 같은 문헌의 유통 기술의 발달은 문헌의 유통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많은 도서관들이 자동화 되었고, 많은 문헌들이 전자화 되었고, 전자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등장하였고, 그리고 전자 문헌의 검색을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이는 컴퓨터공학이 도서관학에 미친 지대한 영향이었다. 이러한 영향은 문헌의

유통에 대한 기술의 단순한 그리고 일방적인 적용이지 문헌의 유통 과정을 염두에 둔 세밀하게 계획된 적용은 아니다.

컴퓨터공학은 문헌정보학에 연관되는 그리고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학문 분야지 문헌정보학은 아니다. 문헌정보학은 문헌의 유통을 연구하여 문헌의 유통에 사용되는 수단을 다루는 컴퓨터공학 분야가 문헌 유통 수단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컴퓨터공학과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학문 분야다. 컴퓨터공학이 컴퓨터의 응용 분야로서 문헌의 자동 처리와 문헌의 검색에 관해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컴퓨터공학이 공학 그 자체의 발달로부터 공학의 실용화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공학은 컴퓨터에 관한 공학이고 컴퓨터 공학은 도구의 발전에 치중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헌의 검색에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은 문헌으로서 문헌은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고 그리고 컴퓨터의 이용자는 사람이고 컴퓨터의 이용 목적은 이용자의 문제 해결이다. 즉 문헌의 유통 수단으로서의 컴퓨터가 다루는 대상은 사람의 사고의 산물인 문헌이고,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헌 유통의 목적은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문헌의 유통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를 컴퓨터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용자는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문헌정보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통 수단의 제작은 컴퓨터공학이 다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6. 문헌정보학의 과제

문헌 유통 기술이 문헌의 유통에 미친 영향은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헌 유통의 최종 단계인 적합한 문헌의 제공과 이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문헌 유통의 단계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1. 문헌의 생산에 관한 과제들

재래식 문헌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개인에 의한 출판은 문헌 생산의 양을 크게 증대시켜 문헌 유통에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문헌의 생산은 문헌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6.1.1. 문헌의 표준화

재래식 문헌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개인에 의한 출판은 유통되는 문헌의 수를 크게 증가 시켰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문헌들을 일일이 한 곳에서 색인하고 목록에 기록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통신망을 통해 개인적으로 출판되는 문헌들을 일일이 찾아 색인하거나 목록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헌의 생산 중에 문헌의 색인을 돕거나 혹은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즉 문헌의 생산자에 의한 색인 내지는 목록 작성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문헌의 표준화다.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고 각기 다른 기관에 수집된 문헌들을 일관성 있게 검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헌들이 일관된 형태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헌을 생산할 때 저자, 제목, 주제, 생산일, 내용 등 문헌을 정리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하여 문헌을 생산한다면 수많은 문헌이 자동적으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헌의 조직을 이용해 이용자가 필요한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이러한 문헌의 표준화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문헌의 조직과 표현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문헌의 생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6.1.2. 전자 문헌의 저작권 문제

문헌의 저작권은 문헌의 생산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생산된 문헌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문헌의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이 문헌의 유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래식 문헌과 전자 문헌의 차이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도서관의 재래식 장서는 대출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지만 재래식 문헌의 공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래식 문헌을 제공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전자 문헌의 경우 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문헌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재래식 문헌에 비해 크게 늘어 난다. 그리고 복제가 매우 쉬워 하나의 문헌으로부터 많은 수의 문헌을 쉽게 양산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문헌이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가 쉽고, 그리고 복제가 쉽기 때문에 문헌의 저작권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개최됐던 1996년 디지털도서관 국제학술회의에서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큰 어려움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지적했던 저작권의 문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전자 문헌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문헌정보학은 다루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해결 방법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문헌의 생산자에게 생산 대가를 국가가 지불하고 생산된 문헌을 국가가 관리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예는 전자 문헌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데는 전자 문헌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연구가 근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2. 문헌의 수집에 관한 과제들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이 문헌의 수집에 미친 영향들 중 중요한 두 가지는 수동적 수집과 잠재적 장서의 증가다. 수동적 수집과 잠재적 장서는 과거 전통적 도서관의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문헌정보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6.2.1. 가치 있는 잠재적 장서의 발견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장서는 그 수가 매우 많다. 수많은 잠재적 장서를 가지고 문헌정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잠재적 장서의 발견은 필수적이다. 잠재적 장서 모두를 일일이 살펴보고 그 중 이용자에게 적합한 것만을 골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통신망상의 장소(Cyber Space)에 있는 문헌들은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신망 장소에 있는 전자 문헌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문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적합한 통신망 장소들을 발견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다. 얼마나 많은 적합한 문헌이 통신망상의 장소에 있는가는 그 장소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무엇을 근거로 평가를 하는가를 관찰해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 기준이 설정되면 실제적인 평가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6.2.2.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의 평가 기준

통신망을 통한 문헌의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집된 전자 문헌들 만으로 문헌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의 평

가 기준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들의 질은 수집의 특성상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직접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공된 문헌들 중 질 낮은 문헌만을 제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헌은 일반적으로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집한 문헌보다 질이 떨어진다. 물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문헌의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들은 그 질적 특성이 도서관 장서와는 다를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의 평가 기준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이용자들의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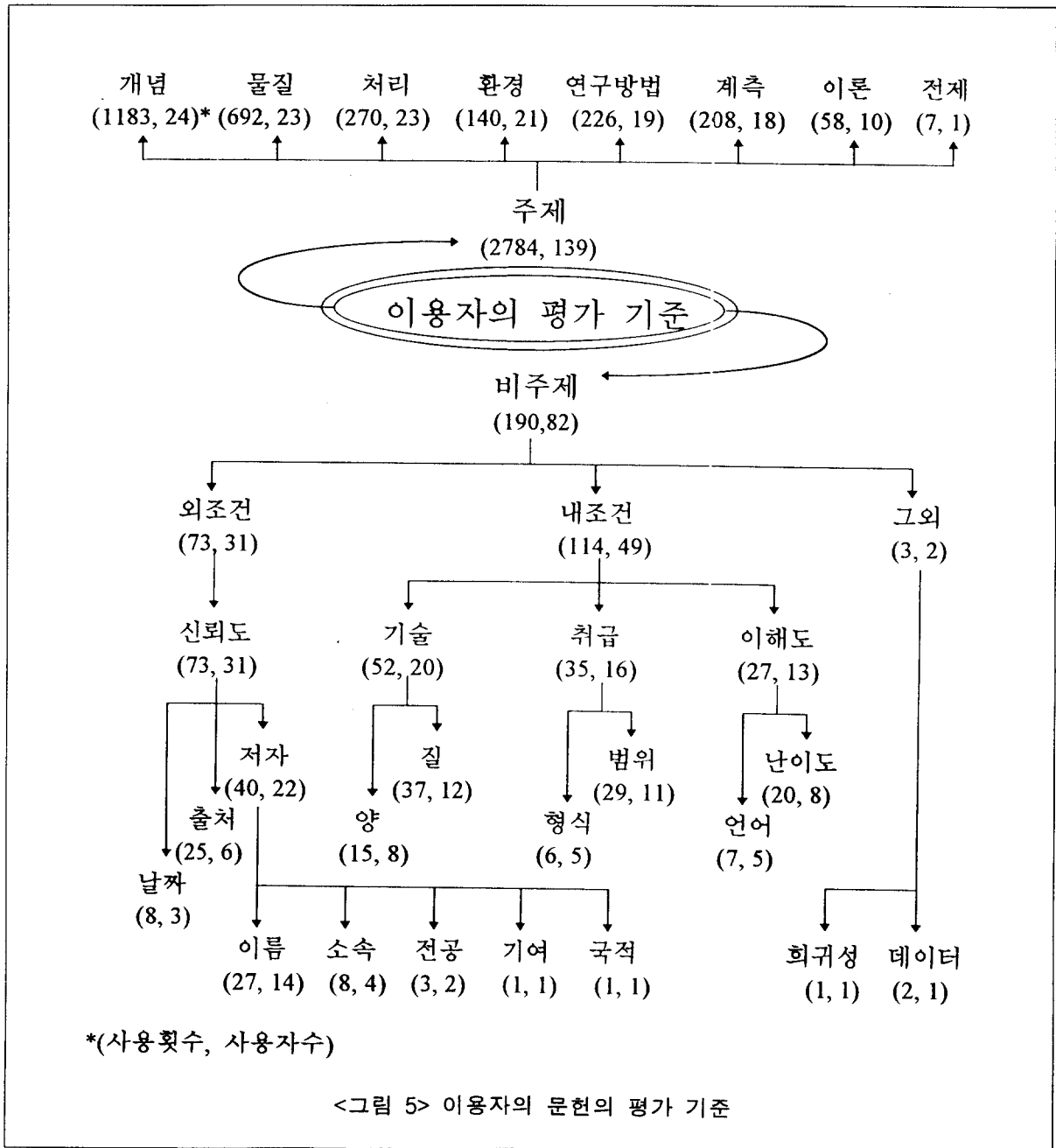
6.3. 문헌의 조직에 관한 과제들

현존하는 문헌의 조직 방법들은 문헌 유통 기술이 정보서비스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이전에 개발된 것이거나 혹은 이러한 변화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다. 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조직은 좀 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맞는 방법이 될 필요가 있다.

6.3.1. 이용자의 문헌의 평가 기준에 근거한 문헌의 조직

문헌을 조직하는 목적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은 이용자의 문헌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조직되어야 한다. 대학 도서관에는 일반적으로 저자, 주제, 서명(書名) 세 종류의 목록이 있다. 저자, 주제 그리고 서명은 문헌의 조직 방법들이다. 이들 세 가지 조직 방법이 선택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들 셋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문헌을 평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는 어떤 특정 저자가 쓴 문헌인가 아닌가,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인가 아닌가, 혹은 특정 제목의 문헌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문헌이 적합한지 혹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때문에 적합한 문헌의 발견을 돕기 위해 저자, 주제, 그리고 서명 별로 문헌을 조직한다. 이러한 조직 방법은 전통적 장서보다 그 수가 훨씬 많은 인터넷과 같은 잠재적 장서의 조직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조직 방법을 사용해 알맞은 수의 적합한 문헌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헌을 찾으면 많은 경우 몇 개의 주제어를 넣어도 수만 개의 문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많은 문헌을 일일이 읽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합한 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문헌을 걸러내기 위한 세밀한 조직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만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문헌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조직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DIALOG를 통해 검색된 학술 문헌들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평가 기준들이 그림 5에 있다 (Park, Hongseok 1996). 이렇게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매우 적합한 문헌만을 찾기 위해서는 문헌은 이러한 평가 기준들에 근거해 조직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림 5의 평가 기준들은 그 기준들을 발견하는데 사용된 이용자와 문헌들의 특성상 일반적인 이용자들을 위한 문헌의 조직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특정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조직하려면 그 특정한 문헌에 대한 그 특정한 계층의 평가를 연구하여 평가 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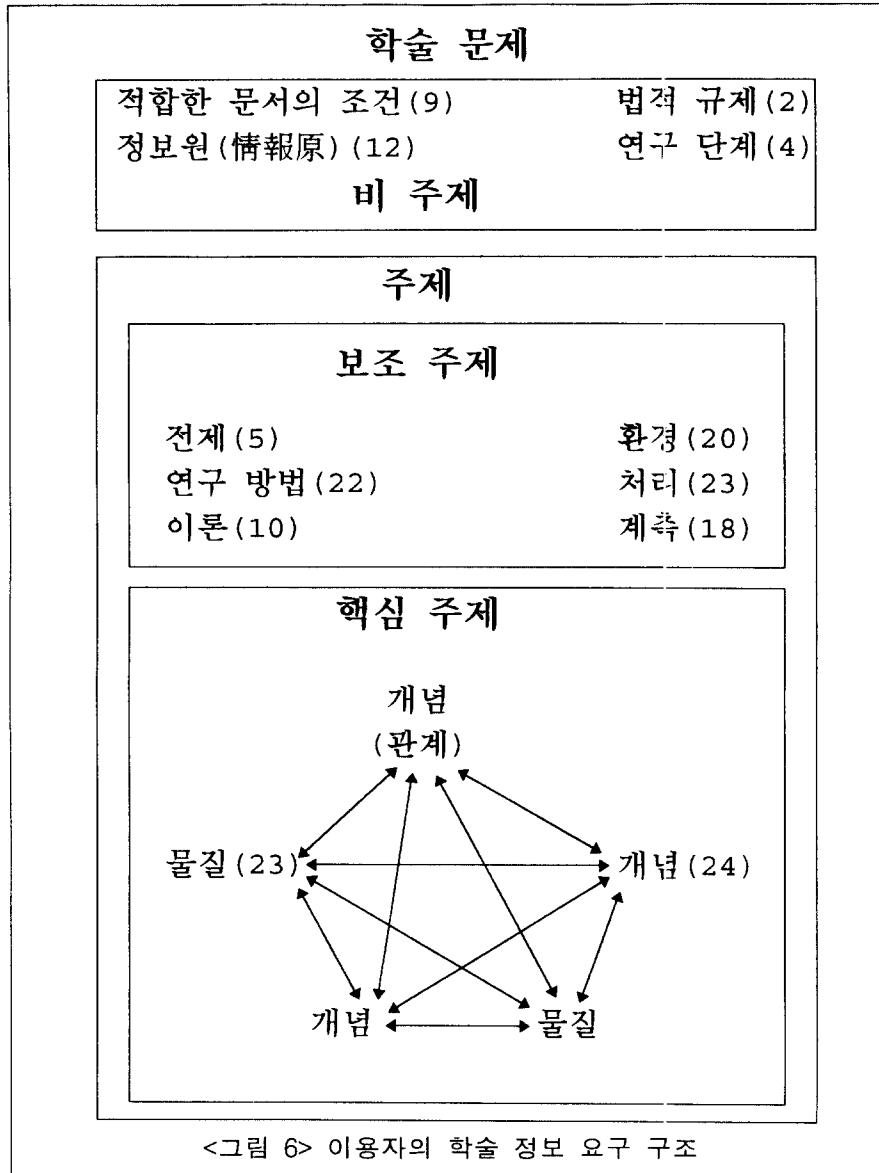
발견해야 한다. 인터넷에 있는 문헌의 효과적인 조직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문헌들을 사용해 여러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헌을 평가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수 많은 문헌들 중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만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문헌의 조직 방법이 세밀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은 이용자의 문헌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헌의 조직 방법이 문헌의 표준화에 사용되어야 한다.

6.3.2. 문헌의 효과적인 표현

문헌 검색을 통해 발견된 문헌들에 대해 이용자가 최종적인 적합성 판단을 한다. 문헌 정보 서비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정확한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적합성 판단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문헌 그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문헌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나 많은 문헌을 직접 보기가 힘들 경우 이용자는 문헌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보고 적합성 판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카드 목록은 그 문헌의 주제, 제목, 저자, 출판일, 크기, 쪽수 등 문헌의 내용과 그리고 내용 외적인 면들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것을 보여 주는 이유는 이용자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 문헌이 적합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쉽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의 초록도 이러한 기능을 한다. 초록은 문헌의 내용을 보여 주고, 즉 표현하고, 이용자는 그 초록을 보고 그 문헌이 적합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한다. 어떠한 형태의 문헌의 표현이건 문헌 표현의 기능과 목적은 짧고 간단하게 문헌에 관한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기호의 양에 크게 비례한다고 볼 때 가능한 한 적은 양의 기호를 가지고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헌의 적합성에 관한 이용자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문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문헌이 이용자의 평가 기준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술 문헌들을 그림 5에 있는 평가 기준들을 사용해 표현한다면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헌의 적합성을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종류의 이용자들을 위한 표현 방법은 그 이용자들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6.4. 문헌의 검색에 관한 과제

잠재적 장서의 등장은 검색해야 할 문헌의 수를 크게 증가 시켰다. 이러한 문헌정보 서



비스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검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었다. 문헌검색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문헌검색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헌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헌의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문헌의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대리인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떤 경우 이용자 자신도 자신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효과적인 문헌검색을 위해 문헌정보학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그림 6에 학술 정보 요구의 구조가 있다 (박홍석, 1995).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의 학술 정보 요구에 대한 서술을 분석해 발견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이용자 정보 요구의 구조가 발견될 수 있다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검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대리인과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

6.5. 문헌의 이용에 관한 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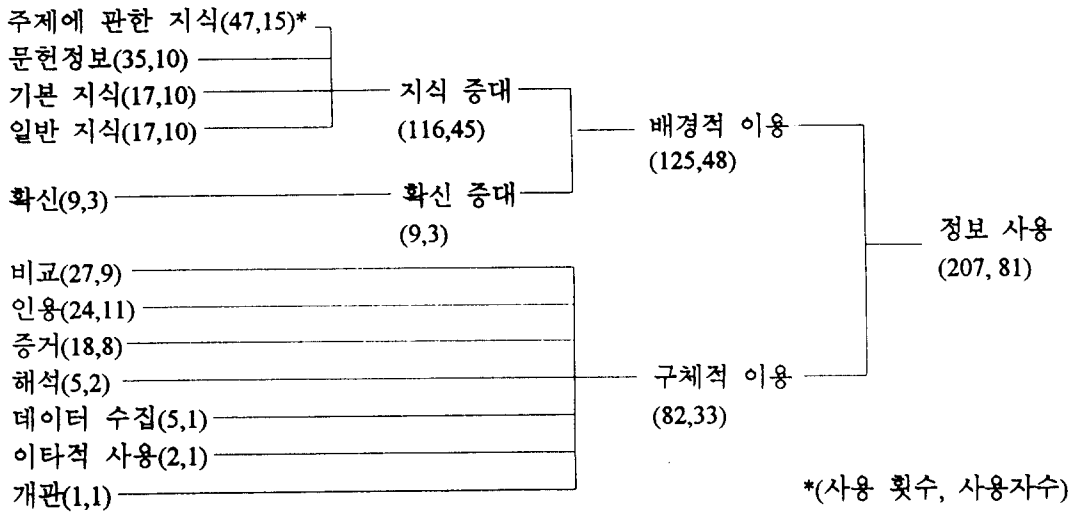
문헌 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헌의 이용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헌이 적합한 문헌이다. 그러므로 문헌의 이용에 관한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는 문헌검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6.1. 어떤 문헌을 이용자가 이용하는가?

이용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을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왜 다른 종류의 문헌에 비해 자주 이용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검색하여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령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을 주로 이용하는 반해 다른 이용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주로 이용한다면 이들 다른 이용자에 대한 문헌 검색 과정과 제공되어야 할 문헌은 달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폭 넓게 알고 싶거나 혹은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해 최신의 것을 알고 싶거나 등의 이용자 문제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 혹은 지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분야와 매우 빠른 분야의 차이와 같은 학문 분야의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특성과 주로 이용되는 문헌의 특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

6.6.2. 문헌의 이용 목적은 무엇인가?

이용자는 여러 가지의 이용 목적을 충족 시키기 위해 문헌을 이용한다.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문헌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 기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 문헌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그 주제가 같더라도 적합한 문헌은 다를 것이다. 그 주제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이용자의 의견과 같은 혹은 다른 견해의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용 목적을 근거로 이용자가 그 주제에 관한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난이도, 출처,



<그림 7> 학술 문헌의 이용 목적

형식 등이 다른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이도 있을 것이다. 문헌의 이용 목적과 적합한 문헌의 특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용 목적에 맞는 문헌의 종류나 특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7에 학술 문헌의 이용 목적들의 예가 있다 (박홍석 1995). 이러한 이용 목적에 맞는 문헌들은 적합성이 높은 문헌들이다. 이용 목적들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이용 목적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적합한 문헌의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다른 종류의 이용자는 다른 종류의 목적을 위해 문헌을 사용할 것이다.

6.6.3. 이용자는 문헌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가?

이용자가 문헌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문헌은 그 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단지 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약간 비슷하거나 연관되었다는 것을 언급만하기 위해 문헌의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단지 간단하게 인용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헌의 이용 방법은 이용 목적과 어떤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개개의 이용자의 이용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단지 소수의 문헌을 중심으로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전개하는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문헌을 비교 종합하여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전개하는 이용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소수의 문헌을 숙독하는 숙독형의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헌을 읽기 원하는 다독형의 이용자도 있을 것이다. 문헌의 이용 방법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적합한 문헌의 기준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에 관한 것이라도 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쓴 문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만 엄선하여 제공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다양하고 폭 넓은 문헌들을 제공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문헌의 이용 방법과 적합한 문헌의 특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용자의 문헌의 이용 방법만 알면 이 이용 방법에 맞는 적합한 문헌의 종류나 특징을 예측할 수 있다.

7.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자면 문헌정보학은 이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은 이용자에 대한 자세한 연구 없이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문헌정보 서비스가 가능했다. 그러나 문헌을 생산, 보관, 그리고 전달하는 문헌 유통 기술의 발달은 문헌의 생산을 크게 늘였고 그리고 생산되는 문헌의 질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헌정보학은 철저한 이용자 연구를 수행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만을 유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문 분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러한 것은 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과 이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 그리고 이에 대한 문헌정보학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 등의 발달에 의해 주도된 문헌의 유통 과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문헌정보학은 해결해야 한다. 문헌검색 분야에서는 문헌정보학이 컴퓨터공학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으나 이것은 문헌정보학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는 모델을 만들어 시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계에 효과적인 문헌검색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그리고 이용자 연구를 통한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문헌의 검색에 관한 것들은 수학적으로 공식화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적인 과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중심에서 문헌정보학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에 도서관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많다. 만약 미래에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용자에게 맞는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문헌의 유통 기술이 발달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개인이 검색할 수 있는 범위와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검색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때에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문헌을 유통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체계화해서 문헌 유통 수단의 제작에 적용해 문헌 유통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문헌정보학의 중요한 학문적 역할이다.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변화하는 대학 환경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홍석 (1995ㄱ). 이용자 문제의 구조와 이의 이용자 문제 지향적 정보검색에 대한 적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28집, 247-266쪽.
- 박홍석 (1995ㄴ). 과학 정보의 학술 연구를 위한 이용 목적.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7-100쪽.
- Desai, Bipin C. Report of the Metadata Workshop Dublin, OH. <http://www.cs.concordia.ca/~faculty/bcdesai/metadata/metadata-workshop-report.html>
- Leonard, L. E. (1975). Inter-Indexer Consistency and Retrieval Effectiveness: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Ph.D.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 Markey, K. (1984). Interindexer Consistency Tests: A Literature Reviews and Report of a Test of Consistency in Indexing Visual Materi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6, pp. 155-177.
- Park, Hongseok (1996). Inferential Representation of Science Document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32(4), pp. 419-429.
- Sperber, D. & Wilson, P.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toll, Clifford (1995).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역. 세종서적
- Toffler, Alvin (1970). Future Shock. New York: Random House.